

# EU, '여객기 피격' 러시아 책임자 제재

### 러 관리 비자발급 중단·자산동결 추가 합의 러시아 무기 금수 조치·경제적 제재는 이전 네덜란드, 희생자 시신 이송받아 신원 확인

유럽연합(EU)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과 관련해 러시아 책임자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 EU 내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많은 국민을 잃은 네덜란드는 희생자 시신과 여객기 블랙박스를 이송받아 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프랑스 팀머만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EU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관리들을 비자발급 중단과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에 공급한 러시아 관리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팀머만스 외무장관은 새로운 제재 대상자 숫자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4일 신규 제재 대상자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회원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 금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원국 간 견해차로 즉각적인 추가 제재 시행이나 경제 제재에 합의하지 못했다.

영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자본시장 접근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경제 관계가 밀접한 프랑스와 독일 등은 수위를 높은 3단계 경제 제재 채택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에서는 희생자 시

신 운송기가 도착하는 23일을 국가 예도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본격적인 신원확인 작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AFP가 보도했다.

빌립-알렉산더 국왕 내외와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에인트호번 공군기

지에서 희생자 시신을 맞이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이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수습한 200여개의 시신은 22일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지역인 하리코프로 이송됐다. 시신은 하리코프에 설치된 네덜란드 조사본부를 통해 23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도착하며 이후 힐베르شم의 군 기지로 옮겨져 신원확인 등 조사를 거친다.

이번 참사로 최대 희생자를 낸 네덜란드가 조사작업을 주도하며 신원 확인이 된 시신은 각국 정부에 인도된다. 뤼테 총리는 "시신 확인 작업에 수 주일에서 수개월

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반군으로부터 확보한 피격 여객기 블랙박스도 네덜란드 정부가 인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을 포함한 각국 전문가들이 영국 항공사고조사국(AAIB)이 있는 런던 근교 판버러로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분석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군이 정부군과 임시 휴전을 제시했으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에서는 양측의 교전이 이어져 민간인 10명과 정부군 13명이 숨졌다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



조사단 현장 방문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격추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 장악지역 토레즈의 그라보보 마을 근처에서 22일(현지시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조사단이 총을 든 반군을 뒤따라 피격기 잔해 길을 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조사단은 지난 주 사건 발생후 처음으로 이날 OSCE 조사단과 함께 피격 현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 민항기 北근접 동해 상공 통과 금지

### 美, 말레이아기 피격 후속조치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의 민항기 비행을 금지했다. 해당 국가는 북한 이외에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북한의 경우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있으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의미한다.

통상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항공청은 특히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울머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2만 피트 밑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리비아에 대해서도 모든 민항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연방항공청은 이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오바마는 번트왕”

### 미 대북전문가, 대북정책 비판 “홍련보다 1루타 치는데 만족”

“북한이 조용해졌다”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지난 20일(현지시간) 발언이 워싱턴 외교계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의 보수성향 대북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케리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바라 오바마 대통령이 ‘담대한 희망’에서 ‘번트왕’(bunter-in-chief)으로 곤두박질친 것 같다”고 힐난했다. “담대한 희망”은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 제목이자 그를 일약 정치적 스타로 만든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의 제목으로, 웅장하고 원대한 정치철학과 신념을 상징하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온라인 매체인 ‘더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상주의적 수사(修辭)로 점철됐던 대선경선 당시의 외교정책을 포기하고 홍련보다는 1루타나 2루타를 치는데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케리 장관, 당신은 이것을 진전이라고 부르려는 제목의 글에서 “작년 4월 중국 방문 이후 북한이 조용해졌다”는 케리 장관의 발언은 도발과 유화공세를 되풀이하는 북한 정권의 ‘강은유화’ 전술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조용해졌다는 케리 장

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며 전세계를 향해 도발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는 북한이 핵실험장에 대한 추가공격 이후 4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케리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북한에 대한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려달라는 미국의 간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인내만 요구할 뿐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의 앵킷 팬다 부편집장은 이날 기사에서 “조용하다는 것은 북한이 순화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울머가 조용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팬다 부편집장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보내기로 했지만 동시에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한·미양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이 둔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중 외교부, 한반도 담당자 류젠차오로 변경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류젠민(劉建民) 부부장(차관급·59)에서 류젠차오(劉建超) 부장조리(차관보급·50·사진)로 최근 변경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류 부장조리의 담당업무는 아시아 사무 및 언론, 영상 업무로 소개돼 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23일 “아시아 담당 업무가 늘어나고 중요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등의 양자업무는 류 부장조리가 새로 맡고 동남아시아, 동·남중국해 문제, 다자 문제 등은 류 부부장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37살이던 2001년 중국 역사상 최연소로 대변인에 임명돼 가장 오랫동안 ‘중국의 입’ 역할을 해온 인물로, 주(駐)필리핀·인도네시아 대사를 거쳐 지난해 부장조리로 임명됐다.

##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 서명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문화재 보호와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정식으로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했다.

문화재청과 미국 이민관세청(ICE)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ICE 본부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 미국에서는 토머스 원코우스키 ICE 청장이 각각 서명자로 나섰다.

나 청장은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타국에도 좋은 본보기가 돼

많은 문화재들이 원래 위치에서 가치를 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원코우스키 ICE 청장은 “한·미 두 나라 모두가 깊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양해각서가 문화재청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효과적인 문화재 관련 수사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ww.oceanoc.co.kr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선착순 한정판매

- 선불 카드 할인표 -

| 충전금액    | 200만원 | 400만원 | 900만원     |
|---------|-------|-------|-----------|
| 그린피 할인율 | 기명1인  | 기명1인  | 무기명1팀(전원) |
| 주중/주말   | 40%   | 50%   | 40%       |

공통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 구분     | 금액      | 비고     |
|--------|---------|--------|
| 입장료    | 주중      | 66,000 |
|        | 주말(공휴일) | 99,000 |
| 팀당 카트비 | 60,000  | 캐디 선택제 |
| 팀당 캐디피 | 100,000 |        |

**Event1** 6월 카트로 면제(4인18홀 라운딩시)

**Event2**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2만원/주말4만원(카트로 포함)

구매햐의 061-536-3952